

청소년의 일상생활이 **즐거움** 고양시

# 제2대 고양시 청소년의회 본회의

2018. 09. 01. (토) 고양시의회 2층 본회의장



**고양시**



재단  
법인

**고양시청소년재단**

# 고양시청소년재단 소개

## 고양시청소년재단은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보호 및 복지향상 등 20만 고양시

청소년의 아름다운 비상을 위해 2016년 11월 설립되었습니다.

### | 설립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 26조\_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설치
- 민법 제32조\_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 | MISSION

"청소년의 일상생활이 즐거운 고양시"

### | 핵심가치



### | VISION

"고양시 청소년 성장지원 플랫폼"

### | 전략목표 &과제

#### 청소년 참여와 활동

- 국제사회의 글로벌 역량강화
- 자기주도적 청소년 참여확대
- 역량있는 창의융합 인재발굴

#### 지역사회 네트워킹

- 자원공유와 시각공유의 지역벨트 구축
- 지역기반의 진로지원체계 강화
- 열린학습과 상호교육 활성화

#### 청소년 보호와 안전

- 인권, 시민권, 평등권 보장
- 청소년이 안전한 지원시스템 확대
-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확대

#### 경영시스템 구축

-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강화
- 고객중심 서비스를 통한 신뢰와 공감
- 창의적 조직문화 및 직원행복

# CONTENTS

## I. 제2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일정 안내

## II. 고양시 청소년 참여기구 소개

고양시청소년의회	05
고양시청소년차세대위원회	06

## III. 2017년 고양시 청소년 정책 제안 및 진행 현황

정책 내용 및 진행 현황	09
---------------	----

## IV. 고양시청소년의회 5분 자유발언

노하영 의장 : 청소년증 의무화	13
강유수 부의장 : 버스 앞 자전거 거치대 설치	15
문서영 의원 : 고양시 청소년 한부모 가정 지원	16
정윤정 의원 : 청소년 몰래카메라	17
장성현 의원 : 청소년 봉사활동 개선방안	19
이윤서 의원 : 청소년 참여예산제	21

## V. 고양시청소년의회 상임위원회 정책제안서

인권상임위원회 : 청소년 성평등 인식 증진 정책	23
교육상임위원회 : 고양시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공간(독서실) 조성	27
문화상임위원회 : 청소년 카페 증설	33
안전상임위원회 : 공유 자전거 활성화	37
안전상임위원회 : 학교육상 관련 규정 제정	40

# I 제2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일정 안내

## □ 개요

- 일 시 : 2018.09.01.(토) 14:00~16:00
- 장 소 : 고양시의회 2층 본회의장
- 대 상 :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원 27명, 고양시청소년차세대위원회 20명 내 · 외빈 등
-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 정책제안, 의원별 5분 자유발언,  
2017년 고양시 청소년 정책 제안 및 진행 현황보고 등

## □ 주요 행사내용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14:20	20'	○ 개회선언(사회 : 고양시청소년의회 노하영 의장) ○ 본회의 축사(고양시의회 이윤승 의장)	
14:20	14:30	10'	○ 017년 청소년 정책 제안 현황, 진행상황 보고	
14:30	15:10	40'	○ 의원 5분 자유발언	
15:10	15:20	10'	○ 정회	
15:20	15:50	30'	○ 상임위원회별 정책제안(인권, 교육, 문화, 안전)	
15:50	16:00	10'	○ 마무리 발언, 산회선언, 단체사진	

## II 고양시 청소년 참여기구 소개

### □ 고양시청소년의회

#### ○ 고양시청소년의회 추진 배경 및 목적

고양시 조례 제 1834호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고양시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내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 고양시청소년의회 모집

- 모집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선발
- 모집기간 : 1차 2017. 12. 15(금) ~ 2018. 03. 15(목)  
2차 2018. 05. 16(수) ~ 2018. 05. 31(목)

#### ○ 고양시청소년의회 구성

- 인 원 : 고양시 청소년(만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27명
- 성 비 : 남자 9명, 여자 18명
- 지역분포 : 일산서구 8명, 일산동구 9명, 덕양구 10명
- 교육분포 : 초등학교 1명, 중학생 15명, 고등학교 11명

#### ○ 고양시청소년의회 활동 현황

- 2018.03.17.(토) 청소년의회 의원 1차 선발 면접
- 2018.03.24.(토) 청소년의회 오리엔테이션
- 2018.03.31.(토) 고양시청소년 참여기구 연합발대식 &  
6.13 지방선거에 전하는 청소년 및 시민들의 이야기
- 2018.05.19.(토) 5월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부스운영 (의회 소개)
- 2018.05.26.(토) 2018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청소년 정책주장대회’ 참가  
‘대상(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 2018.07.21.(토) 성남시 · 양산시 청소년의회 교류
- 2018.08.04.(토) 고양시 청소년 참여예산 교육
- 2018.08.16.(목) 제4기 고양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고양시민  
열린 토론회 청소년 대표 토론(노하영 의장)
- 2018.08.18.(토) 제2회 고양시 청소년 정책 · 참여예산 제안대회
- 2018.05.~08. 정책제안교육 및 상임위원회별 정책제안활동

## □ 고양시청소년차세대위원회

### ○ 고양시청소년차세대위원회 추진 배경 및 목적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기반으로 고양시 청소년 정책, 사업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민주적인 고양시 청소년정책의 운영으로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 권익증진을 도모하여 참여를 보장함.

### ○ 고양시청소년차세대위원회 모집

- 모집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선발
- 모집기간 : 2017. 12. 15(금) ~ 2018. 03. 08(목)

### ○ 고양시청소년차세대위원회 구성

- 인 원 : 고양시 청소년(만9세 이상~만24세 미만) 20명
- 성 비 : 남자 6명, 여자 14명
- 지역분포 : 일산서구 6명, 일산동구 6명, 덕양구 8명
- 교급분포 : 초등학교 2명, 중학교 2명, 고등학교 14명, 대학생 2명

### ○ 고양시청소년차세대위원회 활동 현황

- 2018.03.17.(토) 청소년의회 의원 1차 선발 면접
- 2018.03.24.(토) 청소년의회 오리엔테이션
- 2018.03.31.(토) 고양시청소년 참여기구 연합발대식 & 6.13 지방선거에 전하는 청소년 및 시민들의 이야기
- 2018.04. 고양시청소년차세대위원회 최우수상(여성가족부장관상)수상
- 2018.05.19.(토) 5월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부스운영 (차세대 소개)
- 2018.05.26.(토) 2018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청소년 정책주장대회' 참가 '대상(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 2018.07.21.(토) 성남시·양산시 청소년의회 교류
- 2018.07.27.(금) 모의회체험 및 고양시의회 의원님과의 만남
- 2018.08.04.(토) 고양시 청소년 참여예산 교육
- 2018.08.18.(토) 제2회 고양시 청소년 정책·참여예산 제안대회
- 2018.05.~08. 정책제안교육 및 상임위원회별 정책제안활동

## □ 고양시청소년의회 & 고양시청소년차세대위원회 활동사진



고양시청소년 의회 면접



고양시 청소년 참여기구 연합발대식



6·13 지방선거에 전하는  
청소년&시민들의 이야기



5월 청소년의 달 기념축제 부스운영



2018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청소년 정책 주장대회' 대상수상



고양시 청소년 참여기구 회의

## □ 고양시청소년의회 & 고양시청소년차세대위원회 활동사진



고양시청소년의회 모의의회체험



고양시청소년의회 · 차세대위원회,  
· 성남시, 양산시 청소년의회 교류



제2회 고양시 청소년 정책 · 참여예산  
제안대회 예선심사



고양시 청소년 참여예산 교육



제4기 고양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고양시민 열린 토론회  
청소년 대표 토론(노하영 의장)



제2회 고양시 청소년 정책 · 참여예산  
제안대회 본선발표



### Ⅲ 2017년 고양시 청소년 정책 제안 및 진행 현황

#### □ 정책 내용 및 진행 현황

연번	정책제안자	정책제목	제안 내용 및 진행현황
1	차세대위원회 (인권분과)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정책	<p>○ 정책 내용 요약</p> <p><u>청소년 노동인권 데이터 구축 및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u> <u>청소년을 포함한 노동인권 조례제정</u></p> <p>– 고양시청소년아르바이트지원센터, 고양시 비정규직센터, 고용노동부 고양지원청 업무 협약</p> <p>–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체계적 노동교육 이수</p> <p>– 청소년이 포함된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촉구</p> <p>○ 정책 진행현황</p> <p>– 고양시 조례 제1952호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2018.3.30.)</p> <p>– 2018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청소년정책주장대회 참가,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안’ 으로 대상 수상</p> <p>– 청소년 노동인권 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p>
2	차세대위원회 (교육분과)	고양시 청소년이 알아야 할 권리 “다 함께 만들어가는 성교육”	<p>○ 정책 내용 요약</p> <p><u>성교육UCC대회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u> <u>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성에 대한 인식변화 및 파급효과</u></p> <p>– 성교육(성인지 변화)을 위한 UCC 대회 개최</p> <p>– 연령대별 수준에 맞는 내용 제작</p> <p>– 우수작품 시상 및 교육청 협조를 통한 관내 학교 배포</p> <p>– 인식개선을 위한 온라인 활동</p> <p>○ 정책 진행현황</p> <p>2018년도 다양한 성교육, 양성평등 등 제안 등이 추가로 제안되어 추후 시민 단체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프로젝트 추진 예정</p>

3	차세대위원회 (문화분과)	정치인과 청소년의 만남의 광장! 정치인과 함께하는 톡톡(TalkTalk)	○ 정책 내용 요약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방법의 정치인과의 만남(만남의 주제, 희망하는 정치인 등)진행
			○ 정책 진행현황 - 10~11월 고양시장님과의 토크콘서트 진행예정 -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MC, 패널에 청소년 위주로 구성하여 주도적으로 진행 - 고양시의회 의원님과의 만남 추진(고양시청소년의회)
4	차세대위원회 (문화분과)	금연벨을 올려라!	○ 정책 내용 요약 - 금연벨의 현황 및 상태 파악(작동 여부), 부적절한 장소 금연벨 위치 변경 및 청소년 및 유동인구 많은 곳에 추가 설치 논의 등 - 캠페인과 홍보를 통한 길거리금연, 금연벨 이용 활성화
			○ 정책 진행현황 - 금연벨에 대한 온라인 인식조사 진행 - 금연벨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 80% 집계 - 긍정적인 인식에 비해 여전히 관리의 문제 제기 - 금연벨의 관리상태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운영을 담당하는 보건소에 공식 문서 전달(10~11월 중)
5	차세대위원회 (안전분과)	고양시 청소년이 안전한 거리	○ 정책 내용 요약 - 하굣길 청소년 안전지킴이 활동 - 청소년들이 안전한 거리 만들기 프로젝트 - 청소년 안심귀가 서비스 확대 (자율방범대 순찰로 점검 및 변화 → 청소년 안전길 조성)
			○ 정책 진행현황 - 정책 미집행
6	제1회 고양시 청소년정책 제안대회 본선진출팀	고양시 청소년이 만드는 시와 함께하는 등곳길	○ 정책 내용 요약 고양시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등곳길인 길거리와 버스 정류장에 시를 게재하고 시화를 그리는 정책으로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에게 '시' 로 마음의 위안을 주고,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봉사활동을 도모하고, 청소년들의 시를 어른 세대들과도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
			○ 정책 진행현황 - 8월 초 정책 진행을 시행하기 위한 외국 청소년들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으나, 지속되는 폭염으로 취소됨 - 직접사업은 아니지만 2018년 현재 대진고, 상탄초, 고양동 일대, 행주동 등 다양한 벽화 프로젝트 진행됨

연번	정책제안자	정책제목	제안 내용 및 진행현황
7	제1회 고양시 청소년정책 제안대회 본선진출팀	지역아동센터 거점형 맞춤진로교육	<p>○ 정책 내용 요약</p> <p>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이 꿈을 찾고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각 센터에서 아이들과 개별 면담을 통해 각자에게 맞는 진로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고양시내 지역아동센터의 연계를 통해 거점형으로 진로교육을 제공</p> <p>○ 정책 진행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양시 관내 지역아동센터장 몇분과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와 이와 관련된 피드백 받음</li> <li>-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체 사업들이 많고, 네트워크(거점형)를 통해 협력 운영하는 것이 쉽지는 않음</li> <li>-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아동센터간 협력 · 네트워크라는 것을 인식</li> <li>- 2018년도에는 네트워크 구성 및 많은 지역아동센터의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진로 박람회(부스)형태로 운영 예정</li> </ul>
8		고양시만의 교복기업을 만들어주세요	<p>○ 정책 내용 요약</p> <p>고양시 자체의 교복브랜드 개설. 고양시 및 고양교육지원청의 협력을 통해 “학교 주관 교복 공동구매” 예산을 자체 교복브랜드 운영으로 변경</p> <p>○ 정책 진행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양시 교복지원금 10만원 지원 정책시행</li> <li>- 정책시행 이후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하여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정책 실행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안 예정</li> </ul>
9		고양시 청소년들을 위한 소통채널 모바일앱 (Going)개발	<p>○ 정책 내용 요약</p> <p>고양시지역 내 청소년들끼리의 소통 공간을 마련하여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 고민, 인권침해 및 범법피해 등의 문제를 해결 (소통채널 모바일 앱 개발)</p> <p>○ 정책 진행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소통과 정보 제공을 위한 앱 제작을 위한 청소년들의 의견 수렴하여 제안서를 작성 → 고양시청소년재단 검토 중</li> <li>- 소통 뿐만아니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낭포인 트제’ 도입 제안</li> </ul>

10	제1회 고양시 청소년정책 제안대회 본선진출팀	학생 자치 입법	<p>○ 정책 내용 요약</p> <p>3년에 한 번 투표를 통하여 교칙제정, 선정된 교칙들을 학교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 교내방송, 교칙퀴즈대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홍보</p>
			<p>○ 정책 진행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양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교칙에 대한 만족도 조사 진행</li> <li>- 만족도 결과 '불만' 인 학생들이 대다수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교칙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학교 선정·운영 후 효과성 지역 사회에 보급</li> <li>- 현재 백신고등학교 학생회가 협력하여 학교에 요청 → 학교의 답변 대기 중</li> </ul>
11		자유학년제 개선 (밖으로 프로젝트)	<p>○ 정책 내용 요약</p> <p>앉아서 하는 주입식 교육이 아닌 직접 밖으로 나가 경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전체를 쉬어서 진로체험의 종류 다양화</li> <li>- 진로조사를 통해 희망하는 진로체험 진행</li> <li>- 토론과 독서활동 강화(의무화)</li> <li>- 학교 밖 청소년들도 참여의 기회 제공</li> </ul>
			<p>○ 정책 진행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 기획이 진행되던 시점에는 이미 중학교에서 자유학년제에 대한 계획이 완료된 시점임</li> <li>-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밖으로 프로젝트' 를 직접 기획 및 운영 하여 이에 대한 만족도, 운영방법 등을 담은 운영메뉴얼 작성 → 고양시 관내 학교 보급</li> <li>- 비영리단체 '멘토치' 와 연계하여 전문성 확보</li> </ul>

## Ⅳ 고양시청소년의회 5분 자유발언

### □ 청소년증 의무화에 대한 제안 (노하영 의장)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제6조」에 의거하여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 모두가 평등하게 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져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취지로 시작한 청소년증은 발급률 저조로 인해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7 여성가족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2003년 515명 발급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지만 2003~2017년까지 총 74,4471명이 발급 받았으며, 가장 많이 발급받은 2017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전체 청소년인구 924,9000명중 18,8562명으로 약 2% 정도만이 발급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청소년증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부족과 홍보미흡으로 인해 청소년증을 알고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경우 학생증과 기능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청소년증 발급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청소년증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비재학 청소년들이라는 사회적 편견으로 청소년증 사용을 꺼려 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에 고양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증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청소년증의 의무화’는 법으로 제정된 정책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양시에서 만큼이라도 ‘청소년증 의무화’를 통해 학생과 비학생 구분없이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여 평등한 청소년환경을 조성하는데 고양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현재 청소년증 발급은 청소년 본인이 선택에 의해 알아보고 오지 않는 이상 발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증을 의무화하여 청소년증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청소년증을 사용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줄어들고 청소년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사라지기를 희망합니다.

청소년증 의무화 과정에서는 청소년증 사용에 대한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대토론회를 열고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의 취향과 특성을 고려하고 청소년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자체 및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혜택 영역 확대와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적 기능을 갖추어 더 다양한 곳에서 쉽게 청소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재준 고양시장님의 공약사항 중 하나였던 ‘고양페이’ 도입을 통한 지역상권활성화를 청소년증과 연계하는 것도 좋은 예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양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증’ 이 더 이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청소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시장님께서서는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 버스 앞 자전거 거치대 설치 (강유수 부의장)

‘버스 전면에 자전거 캐리어 도입’이라는 정책을 제안하게 된 강유수의원입니다. 저는 청소년으로서, 동시에 고양시민의 일원으로서 현재 고양시민의 생활을 바라보아왔습니다. 그 중 ‘자전거도시’라는 타이틀을 달고 시행된 고양시 정책추진의 시각에 비추어 자전거와 대중교통의 연계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양시에서는 자전거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피프틴과 자전거 도로 구축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비롯한 고양시민은 자전거 문화생활을 호수공원, 한강과 같은 넓고 안전한 공간에서 즐기고 싶지만, 집에서부터의 거리가 어중간히 멀어 자전거로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자전거를 통학과 출퇴근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싶지만 자전거만을 타고 이동하기에 거리가 멀어 불편한 상황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자전거를 버스에 싣고 두 이동수단을 연계하면 편리하겠지만, 자전거는 버스 규정 상 버스 내에 탑재가 불가능합니다. 시내버스 운송 사업 약관 제 10조에 따르면 ‘버스로 및 승하차문을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7조에 따르면 ‘휴대품의 차내 반입 허용량은 1인당 중량 20kg미만이고 용적규격이 50×40×20 입방 센티미터 미만으로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보아 접이식 자전거가 아니라면 차내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간단히 말해, 현재 자전거와 대중교통의 연계가 미흡합니다.

따라서 버스 전면에 자전거 거치대(캐리어) 설치를 제안합니다. 자전거를 버스 내에 실을 수 없는 현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전거를 버스 내부가 아닌 외부에 실을 수 있도록 철 구조물을 버스 앞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버스와 자전거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LA의 메트로 버스는 몇 년째 자전거 캐리어가 부착된 채 운행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 이를 실제로 시범 운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구체적 방법은 이렇습니다. 가로 170cm, 세로 75cm의 철 구조물로 버스의 앞쪽 범퍼에 부착합니다. 캐리어는 자전거 2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캐리어는 평상시에는 버스에 납작하게 붙어 있다가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앞쪽으로 펼쳐집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자전거 1대를 캐리어에 장착하거나 떼어내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로, 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준은 아닙니다.

이 자전거 캐리어 도입을 통해 자전거가 대중교통수단의 보조 수단의 역할을 한다면 장거리는 버스 또는 지하철로, 단거리는 자전거로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자전거 캐리어 부착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고 동시에 자전거문화생활이 발전되는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버스의 이용이 늘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으며 시민의 건강 또한 증진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숙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고양시 미혼모·부자 가정 지원요청 (인권상임위원회 문서영 의원)

저는 오늘 고양시 미혼모·부 지원 시스템의 문제점과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복지도시가 되기 위해 미혼모·부 지원의 중요성에 대하여 발언 하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는 반면에 해외로 입양되는 한국인 아이들의 명수는 세계에서 2위를 달린다고 합니다. 영유아 위탁 센터에 따르면 이 아이들은 대부분 미혼모·부 들이 책임지지 못하겠거나 자신들의 삶이 힘들어서 맡기고 가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이에 미혼모·부들의 자립지원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제안하려 했지만 고양시 내에 이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조차 없어 지원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예산을 얼마나 편성하여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실정입니다. 우선적으로 고양시 내에 미혼모·부 가정이 어디에, 얼마나 분포하여있는지를 조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지속적인 홍보와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부가 갖는 사회적 편견을 사라지게끔 신경 써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고양시 내에서 미혼모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행중인 정책으로 성인이라면 아동 1인당 월 13만원 지급, 청소년 한부모는 월 30만원 내외로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 지원의 한계선입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봅시다. 과연 경제적 자립 능력도 없는 청소년이 월 30만원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아이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게 된 고양시민 청소년 미혼모·부들은 자신들이 더 공부하길 원할지라도 임신, 양육으로 인하여 교육받기가 힘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위탁 교육기관을 고양시 내에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 미혼모·부들에게 학업을 지원해주는 경기도 내의 기관은 경기 남부 수원에 있는 홀트고등학교가 유일합니다. 청소년이기에 자동차도 몰 수 없고 면허가 있어도 아이 때문에 2시간이나 걸리는 수원까지 이동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청소년들을 위하여, 미래의 더 나은 인재를 위해서라도 이들의 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단체를 고양시 자체적으로 운영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더군다나 미혼모·부자가 현재상황의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은 경기도 남부 안산에 단 하나 존재할 뿐 북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홀로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것도 힘든데, 고양시민이 언제 또 안산까지 아이들 데리고 가서 지원을 받겠습니까. 또한 일정기간의 주거와 심리치료 지원 등을 해주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경기 남부인 수원 한 곳뿐입니다. 게다가 이 복지시설은 미혼모·부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조손가족 등 다른 한부모 가족들을 포함하여 실시되는 시설로서 실질적으로 미혼모·부 가정의 삶을 지원받기 힘듭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미혼모·부 지원 정책을 통하여 고양시가 추구하는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의 모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복지도시로써 미래사회에 단단히 발돋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하며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 청소년 몰래카메라 문제점(안전상위원회 정윤정 의원)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찍히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카메라가 버스와 지하철에서, 공중화장실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곳에서 우리를 찍고 있습니다. 은밀한 곳까지 말이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다 안전이 보장되는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 몰래카메라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일명 몰카라고 불리는 이것은 흔히 말하는 불법촬영을 뜻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카메라 구매에 대한 규정이 없어 누구든지 싼값에 몰카에 사용되는 카메라 구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몰래카메라는 작아 맨눈으로는 확인이 어렵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물건들에 내장되어있는 경우도 있어 단속이 어렵습니다. 몰카에 찍힌 영상들은 소라넷, 천사티비, 텀블러와 같은 불법 야동사이트에 업로드 됩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 그리고 저와같은 여성 청소년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간으로써의 삶이 누군가의 성적욕구를 위한 포르노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 법적으로 몰카를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그리고 몰카범이 경찰에게 들미가 잡혀도 피해자 대부분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고 피해자 스스로도 자신이 피해자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00명의 가해자가 있다면 약 2명이 집행유예로 처벌되는 정도입니다. 허술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요.

저는 이번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의 사례와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시 그리고 당사자 분들께 허락 받아 그 분들의 사례를 적었습니다.지금부터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몰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사례를 말하고자 합니다.

16세 이양은 항상 대바늘을 들고 다닙니다. 가끔씩 지하철 화장실 구멍사이로 대바늘을 넣으면 렌즈 카메라가 깨지는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20세 박양은 올해 5월즈음 에스컬레이터에서 뒷사람이 자신의 치마속을 찍는것 같아 화를 냈고 그러자 그 가해자가 “지우면 될것 아니냐” 하며 하며 그녀에게 성적인 희롱을 가했다고 합니다. 17세 정양은 공중화장실 사용을 안하려고하지만 부득이한 상황에는 마스크나 손수건 같은 걸로 얼굴을 가리면서 일을 본다고 합니다. 위 사례처럼 피해자는 여러분들의 친구, 가족,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고 돌아 여러분들이 될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의 작은 스티커로 몰카로부터 안전해질수 있다는 것ですよ. 현재 “NO,불법촬영(몰카)ZONE” 과 같은 청소년 동아리들은 청소년들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직접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 지하철 역 등 다양한 공간에서 몰카를 수색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탐색하고 몰카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인 것이 확인되면 그 기관에 안전패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스를 운영하여 불법촬영의 위험성을 설명해주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너무 예민한것 아니냐고. 그저 “나의 취미일 뿐이라고. 나의 즐거움을 앗아가지 말라고” 그러나 우리는 예민해져도 됩니다. 아니 예민해져야 합니다. 이 예민함은 우리가 살기좋은 고양시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 입니다. 고양시는 고양시내에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나는 소중한니까요. 나의 몸은 누군가의 단순한 성적소유물이 되면 안될 정도로 소중한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예민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민해도 괜찮습니다’

## □ 청소년 봉사활동 개선 방안 (문화상위원회 장성현 의원)

요즘 저를 비롯한 청소년들이 봉사활동 하느라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특히 저 같은 중학생들은 봉사활동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있는 반면, 그저 봉사시간 채우려고 누군가에게 이끌려 대충하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분명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더욱 더 성숙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제 장래희망은 외교관이어서 국제행사와 관련된 봉사를 하고 싶어 찾아보았지만, 나이와 지역이 제한되어서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이 없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꿈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봉사활동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를 비롯한 많은 청소년들이 장래희망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생활기록부를 위한 봉사시간 채우기에 연연하여 진정한 봉사의 의미가 퇴색되는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중학교 1학년들은 자신의 꿈과 끼를 찾기 위한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3이 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 귀한 1년이라는 시간동안 중학교 1학년들이 봉사에 첫 발을 내딛는 시기라는 점에 더 큰 의미를 둔다면, 자유학년제와 봉사를 연관 지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많은 공기업과 관공서들이 청소년들에게 단순히 직업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더 많은 봉사의 기회도 제공한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봉사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보통 봉사활동을 신청할 때, 1365에 등록된 봉사활동을 찾거나 학교에서 안내해주는 봉사활동을 신청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봉사활동을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단순히 봉사시간을 채우려고 급급한 나머지, 해당 봉사의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 하기 일쑤입니다. 정말 봉사활동을 찾아볼 때 이 방법밖에 없나요?

저는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자신에게 맞는 봉사활동을 직접 찾아보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청소년들이 잘 모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를 비롯한 많은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학교뿐만 아니라 주민 센터, 청소년재단을 비롯한 청소년시설, 페이스북 등의 인터넷을 활용하면 더 많은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더욱 더 성숙한 청소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봉사란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봉사는 그저 남을 돕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봉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가치를 모르는 청소년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방법을 토대로 청소년들의 참여 활동을 증진시키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 주도권을 확립하기 위해 ‘청소년 참여 예산제’를 내세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는 재정운영 과정에 주민이 직접 의견제시를 통해 운영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입은 안전행정부가 처음으로 공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들이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근황으로는 기관 주도의 청소년 참여 예산제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보도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어 청소년들의 참여도가 떨어지며 청소년 위주의 예산 편성이 아니기에 부정적인 인식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에 예산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배정하여 더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면 청소년들의 참여도가 정제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 참여 예산제가 활성화 되어있는 서울시 교육청의 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연도에도 서울시 의회에 협조를 얻어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청소년 참여 예산제 사업비로 총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소년의 제안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여 학생 스스로 사업을 계획하고 제안한 정책을 더욱 수월하게 추진시킬 수 있게 됩니다. 2016년에는 120여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2017년에는 모든 중, 고등학교에 200만원씩 14억여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 올해는 전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16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차등 부여한다고 합니다. 고양시도 소규모로 사업 대상 학교를 먼저 선정하여 진행하고 서울시와 같이 전년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차등 부여 한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의 성과는 활동내용과 계획서를 통해 예산 사용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선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예산을 배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청소년 참여 예산제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청소년들의 의견 수렴과 예산 학교의 운영을 정해야 합니다. 청소년 참여 예산제가 올바르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고양시가 교육과 지도를 주도해야 합니다. 또한 대상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동등한 대우와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청소년 참여 예산제가 생성하는 과정 중 예산 관련 전문가로부터 참여예산에 관한 교육을 받고 그 후에 정책을 신청하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참여 예산제의 취지로 지역 문제에 대한 청소년 관심 제고와 정책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반영하여 정치적 책임을 이양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다소 한정적인 참여 예산 정보를 교육과정에서 얻게 됨으로서 참여 민주주의 성숙함을 유도해 낼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관련 직업분야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 참여 예산제의 핵심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참여의 필요성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책임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하며 청소년들에게 정치 참여를 장려하는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을 ‘교복 입은 시민’의 일환으로 제안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여 학생 스스로 사업을 계획하고 제안한 정책을 더욱 수월하게 추진시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모든 청소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참여가 진정성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참여 예산제’ 발언자 고양시 청소년 교육 분과의원 이윤서였습니다.

## V 고양시청소년의회 상임위원회 정책제안서

### □ 인권상임위원회 : 청소년 성평등 인식 증진 정책

정책제안주제	청소년 성평등 인식 증진 정책
제안내용 요약	성에 대한 의식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현재 고양시에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교육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함으로써 서로를 존중하며 공동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다.

제안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등
<p>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性)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사회문제로 놓여있다.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군대와 출산 등의 상황을 비교하며 대립하고 있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몰카에 대한 사회 이슈로 인해 남녀의 포비아적 성격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p> <p>우리 고양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7월 5일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7년에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에 의거하여 약 34억71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다.</p> <p>시는 여기서 나오는 이자수익을 통해 공모사업을 진행하여 관련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저출산 극복,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등 현실과 거리가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었고 심지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은 존재하지 않았다. 아울러 2017년엔 9,200만원의 예산을 통해 12개의 단체를 지원했으나, 올해엔 7,800만원의 예산으로 7개 분야의 공모사업을 10개 단체에게 위탁하는데 그쳤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 향상된 사업을 기대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는 고양시 105만 시민은 물론, 20만 청소년들이 수혜받기에 부족한 예산임이 분명하다. 무조건 예산을 높이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의 방향만 잘 잡는다면 현재의 예산과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청소년들에게 성과 인권에 대한 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p>

현재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 활동가 양성과정’ 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여성과 인권, 성평등에 대한 이해와 젠더의식에 대한 감수성을 주제로 진행되며 교육을 수료한 이후에는 강사로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시민이 시민을 교육하고 함께 성장해나간다는 것이다. 위탁이 아닌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것도 특별한 점이다.

고양시도 여성인력개발팀에서 성평등 업무를 담당하여 진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외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탁받아 진행하는 단체의 특성에 따라 그 색채가 달라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청소년과 일반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성평등 사업을 만들어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느껴진다. 인권상임위원회에서는 성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정책을 제안한다.

#### 정책(또는 프로그램/사업) 제안내용

### 1. 고양시 성평등 교육강사 양성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내기 위해 ‘교육’ 을 택했다. 현재 고양시의 예산도 기금의 이자수익을 토대로 마련되기 때문에 넉넉한 편은 아니다. 아울러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기 보다는 특정한 사업에 집중하여 밀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5장 성평등 문화 확산 등 제21조(성평등 의식 제고)에는 “시장은 공공기관 및 가정 · 학교 · 사회교육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개발 ·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가 분명하고 언제든 시장의 의지에 한해서 진행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는 수료자에 한해서 활동기회 부여와 함께 강사비를 지급함으로써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협업을 통해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와 고양시가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광명시의 경우, 시의 산하기관인 여성비전센터에서 성평등 교육강사 양성을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다. 고양시에도 여성회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양성에 대한 계획안이 구성된다면 언제든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 고양시 청소년 성평등 교육 확대

인천광역시 동구에서는 현재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평등 인권교육’ 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의 내용은 젠더 감수성과 진로탐색, 성폭력 · 데이트 폭력 시 대응 방법, 성평등 실현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그룹 활동 등 성평등 교육에 성교육까지 접목하여 강사가 기관을 직접 찾아가다니며 강의하고 있다. 이와는 상반되게 고양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이런 체계적인 성평등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을 것이다. 2017년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통해 ‘성폭력 전문상담원’이 배출되었지만 이는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응할 수 있고, 성폭력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진행하고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

자체적으로 진행한 조사에 결과에 따르면, 현재 의정생활을 하고 있는 청소년의회 의원 중 90%가 넘는 비율이 지금까지 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이어져오고 있는 남녀의 갈등을 풀기 위해선 서로의 다름을 인지할 수 있는 성평등 교육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의 확대를 위해선 교육과 관련된 예산의 증액과 고양교육지원청과의 거버넌스가 우선적으로 보인다. 강사단을 구성하여 고양시 관내 약 160개의 초·중·고 청소년 기관시설에 교육을 나갈 수 있도록 강사 예산을 증액하고, 시와 교육지원청의 업무협약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서로의 자원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 고양시 청소년이 함께 하는 성평등 사업 계획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젠더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들과 함께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시민들의 자발적 시정참여 유도과 함께 시민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살아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우리 고양시에서도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단과 교육을 받게 될 청소년자문단이 함께 하여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고양시의 주요성평등 정책엔 여성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예방이다. 하지만 2018년 고양시 성평등 기금을 통해 진행되는 여성 경제활동 촉진, 저출산 극복, 여성일자리에 대한 지원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당장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과 포럼 등의 행사가 최우선일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성평등, 청소년이 생각하는 젠더감성 등을 주제로 하여 포럼을 개최하거나 성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는 친구들을 위해 또래상담사와 같은 사업이 진행되어 그들의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을 위한 자문단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 기대효과

### 1. 고양시 성평등 교육강사 양성

- 위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 자체적인 관계망을 구축할 수 있다.
- 고양시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단발성 사업이 아닌 기수제로 진행하여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
- 강사 양성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 2. 고양시 청소년 성평등 교육 확대

- 성에 대해 고민하는 청소년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나와 다른 사람을 인지하고 인정함으로써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 성교육과 연동하여 함께 진행하여 성과 젠더의식에 대해 일깨워 줄 수 있다.

### 3. 고양시 청소년이 함께 하는 성평등 사업 계획

- 현재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토대로 계획할 수 있다.
- 청소년 당사자가 직접 기획함으로써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 □ 교육상임위원회 : 고양시 유헬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공간(독서실) 조성

정책제안주제	고양시 유헬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공간(독서실) 조성
제안내용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독서실의 이용자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학업 공간에 대한 대책 필요</li> <li>- 고양시 내 유헬공간을 청소년 독서실로 조성 및 활용</li> <li>- 청소년들이 기존의 사설 독서실 대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li> </ul>

### 제안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등

1. 청소년 독서실은 청소년의 기본권에 대한 문제이다.

헌법 제12조 2항은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역에 한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독서실이 운영되고 있어 타 지역 청소년들과의 공정성을 지켜야할 필요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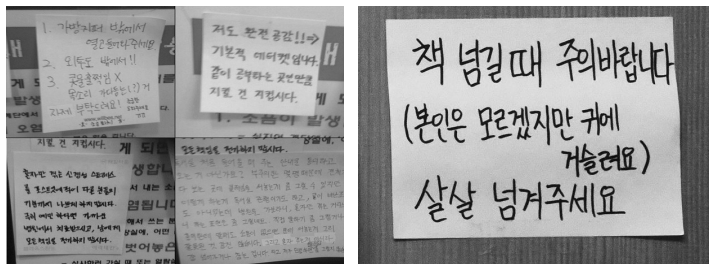
또한 청소년기본법에도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인식 · 태도 · 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2. 최근 공공독서실 이용자 간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과 독서 · 학업 관련 비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 〈예시 - 독서실 내 소음 민원〉



3. 현재 사설독서실의 공간 활용이 개인에 맞춰져있어 소음과 기타 공해로부터 보호, 청소년과 성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과 장애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인 경우가 많아 배려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해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예시 - 기존 공공독서실(좌), 사설독서실(우)〉



4. 따라서 청소년들을 위한 독서실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고양시청소년재단의 비전인 ‘청소년의 일상생활이 즐거운 고양시’와 전략과제 중 하나인 ‘청소년의 권리를 증진하는 것’을 실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더 큰 비전과 목표로 나아가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

## □ 현황

1. 고양시가 2015년부터 3년에 걸쳐 관내 국·공유지 7597필지(504만9000㎡)에 대한 통합 전수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유휴지를 보면 ▲덕양구 137필지 ▲일산동구 30필지 ▲일산서구 26필지 등 총 193필지 3만5464㎡으로 확인됨.

2. 고양시 내 청소년수련시설(원)은 21곳, 주민센터는 덕양구 19곳, 일산동구 11곳, 일산서구 10곳으로 확인되며 주변의 소음으로부터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갖추어진 시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3. 대표적인 사설독서실인 일산 토즈독서실의 경우 하루 15,000원, 정기관 125,000원으로 청소년과 각 가정에 있어 사교육에 투자되는 비용과 함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안길 수 있는 수준으로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청소년 독서실의 이용료 1일 500원과 1개월 13,000원 대비 현격한 차이를 보임.

4. 현재 고양시에서는 각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고양시민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장소,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운영 중으로 이용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소개되고 있음.

5. 현재 서울시는 청소년 독서실을 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청소년, 시민들이 자유롭게 부담 없는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6. 대한민국 청소년에게 투자되는 연간 총 사교육비는 18조 6,223억원, 학생1인당 사교육비는 27만 1천원으로 사교육 참여율은 평균 70.5%이며 매년 급증하고 있음 (출처 : 통계청)

7. 2017년 기준 고양시 청소년 인구 통계는 덕양구 80,824명, 일산서구 65,648명, 일산동구 59,728명으로 확인되며 고양시 전체 인구 1,041,587명 중 206,200명으로 약 19.8%를 차지함.

#### 〈예시 ‘고양시 공공시설 유휴공간 무료 대여’ 이용 방법〉

절차/방법	○ 방문 또는 유선 ○ 온라인( <a href="http://www.goyang.go.kr/kr/facilities/main.do">http://www.goyang.go.kr/kr/facilities/main.do</a> ) : 일산동구청, 덕양구청 온라인예약 필수
구비서류	공공시설 무료개방 신청서 (동 주민센터 등 대관기관 비치)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접수기관	대관처 / 연락처 대관처 문의
문의처	경기도 고양시 정책기획담당관 / 연락처 031-9075-2055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서울시 청소년독서실 운영 개요〉

구분	운영시간	독서실명	이용대상	입실료	사물함사용료 (개정 2012.10.4)
거점 독서실	오전 08:00 ~ 오후 23:00	구민회관, 도림2동, 양평3가,문화의집 신길7동, 대림1동	청소년 및 일반	1일 500원	1일권 500원
일반 독서실	오전 08:00 ~ 오후 22:00	도림1동, 신길3동, 신길5동, 신길6동			정기권(1개월) 13,000원
오후 독서실	오후 14:00 ~ 오후 22:00	영등포본동, 양평2동,신길4동			

정책(또는 프로그램/사업) 제안내용

□ 고양시 청소년 독서실 조성 및 운영

고양시청소년수련관,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자치센터)의 유휴공간을 이용하거나 새로운 건물을 만들어 청소년 독서실 형태로 운영

[공통]

이용료 : - 1일 기준 청소년 500원, 성인 1,000원

- 한달 정액권 13,000원

\* 청소년 연령 범위 : 9세 ~ 24세 청소년 \*

이용료 할인 대상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5. 「아동복지법」에 따라 소년·소녀 가정으로 선정된 사람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7.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방안1 - 고양시 지역 청소년수련관을 활용]

현재 고양시 지역에는 토당청소년수련관,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마두청소년수련관이 운영중

장점 - 활용할 수 있는 유휴 공간이 많아 재정적인 부담이 타 방안에 비해 낮음

-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방문 유도로 청소년 수련원 이용 및 참여율 증대 가능
- 참여율의 증대로 인한 다양한 활동 홍보 등으로 청소년 활동 간 시너지 확대 기대

단점 - 기타 부대 행사가 있을 시 주변 환경으로 인한 소음 및 불편함이 우려

#### [방안2 – 행정복지센터 활용]

현재 덕양구 19곳, 일산동구 11곳, 일산서구 10곳의 행정복지센터가 운영중

장점 – 총 40곳에 달하는 행정복지센터가 있어 상대적으로 유휴공간 확보가 원활하고 새로운 공간  
조성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낮음

단점 – 행정복지센터도 청소년 수련원과 마찬가지로 소음과 주변 민원 제기 가능성이 있음

#### [방안1 · 2 추가 계획안]

- 1안과 2안은 기존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 경우 기존 시설의 기능과 역할 수행으로 인한  
상설 독서실 공간으로의 확보와 운영이 다소 어려울 수 있어 정책 도입 후 실현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1안 또는 2안으로 진행 시 청소년 독서실에 대한 수요량을 계량하고 이에 알맞은 공급량을  
계획하기 위해 지역 중 · 고등학교의 시험 기간에 맞춰 시범적으로 일부 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독서실을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함

#### [방안3 – 건물을 신축해 청소년 독서실을 운영]

운영시간 : 오전 8시 ~ 오후 11시

운영요일 : 월요일 ~ 일요일 (단, 공휴일은 휴관)

운영방침 : 남녀 공간을 분리해 조성하고 자리를 지정하도록 함 (효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

필요시설 : 책상, 의자, 조명, 공기청정기, 에어컨 및 히터, 무선인터넷, 화장실, 정수기

부대시설 : 산소 시스템, 백색소음시스템, 사물함, 신발장,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 컴퓨터실 등

안전대비 : 시설 개선 및 안전 점검은 주기적으로 실시

기타사항 : 환불 규정 – 정기관에 대해서는 환불 기준을 별도로 수립

매월 1일 해달 월에 대한 정액권을 구매할 수 있음 (30일 기준)

#### 기대효과

1. 저소득층 학생 등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음
2. 사설 독서실과 같이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학업 가능
3. 독서실 내 세미나 실 등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4. 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시 재생의 우수사례를 목표로 할 수 있음
5. 청소년수련원, 행정복지센터 내 유휴공간을 활용할 경우 고양시청소년재단 등에서 진행하는 청소년·지역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게시판을 만들어 지역 청소년들의 정보 습득 창구로 활용 가능
6. 공부방, 도서자료실, 인터넷 정보자료실, 교육문화프로그램, 청소년 상담실 등을 운영하여 고양시 지역 청소년과 주민에게 열린 문화공간을 및 정서지원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지역 문화의 발전과 공유를 가능하게 함



## □ 문화상임위원회 : 청소년 카페 증설

정책제안주제	청소년 카페 증설
제안내용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의 문화생활을 장려하기 위한 문화시설 공간 증설</li> <li>- 청소년카페 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물품 구비</li> </ul>

### 제안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등

1. 청소년카페를 비롯한 청소년시설은 문화 생활 뿐만 아니라 여가생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고양시 내의 청소년카페는 총 4곳으로, 백마역 청소년카페 깔깔깔, 능곡역 청소년락카페, 화정 청소년카페 톡톡톡, 그리고 주교동 청소년카페가 있다. 청소년카페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주교동 청소년 카페의 경우, 다문화가족 청소년들과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다문화가족 자녀를 지원하고 있고, 청소년카페 뿐만 아니라 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을 비롯한 청소년시설도 있다. 현재 고양시청소년재단에 있는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카페 4곳, 청소년기관(수련관 등) 7곳으로 총 11곳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관은 지도상 고양시의 중간 부분 특히 덕양구 쪽으로 몰려있는 현실이다.



[자료 1- 고양시청소년시설 현황]

2. 많은 사람들이 조별과제, 모임 등에 있어서 많이 즐겨 찾는 장소는 카페이다. 비교적 많은 장소에 분포되어 있고, 최근 무더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다. 현재 'S' 카페의 메뉴 [자료 2-'S' 카페 메뉴판] 중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음료수들이다. 가장 싼 음료수는 5,000원, 가장 비싼 음료수는 7,300원까지 한다. 사실 이 가격은 성인들도 선뜻 마시기가 꺼려지는 가격이다. 이렇다 보니 수입이 용돈뿐인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청소년의 월 평균 용돈은 5~6만 원 정도이다. 이 카페에서 음료 1개만 마셔도 용돈 7분의 1을 소비하는 것이다. 여기에, 현재 재학 중인 중학생의 경우, 지필고사의 반영 비율을 줄이고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이 높아지면서 다른 학생들과 협력해야하는 조별 과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조별 과제를 진행하려면 회의를 해야 하는데, 회의를 할 장소를 잡아야 한다. 스터디 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약을 하지 않으면 방을 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널리 분포되어 있지 않고 학원가, 또는 역 근처에 몰려있어서 과제를 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

프라두치노 Praduchino		스타벅스 피자오 Starbucks Pizzao	
아메리카노	6,100	아메리카노	6,100
라떼	6,600	라떼	6,600
카푸치노	6,600	카푸치노	6,600
콜드 브루	6,600	콜드 브루	6,600
블렌디드	6,600	블렌디드	6,600
초콜릿	6,600	초콜릿	6,600
...	...	...	...

[자료 2-'S' 카페 메뉴판]

## [현황]

1. 고양시 내 청소년카페는 4곳이고, 덕양구에 3곳, 일산 동구에 1곳으로 확인됨.

현재 중산동은 중고등학교가 총 4곳이고, 3,823명의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청소년카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2. 대표적인 청소년 카페인 화정 청소년 카페 톡톡톡의 경우에는, 버려졌던 화정역 지하보도를 활용해서 2014년 7월에 개관한 청소년시설로, 도시재생의 좋은 예로 소개된 기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http://korealand.tistory.com/7609>) [기자단 출동] 우리 주변의 도시재생, 화정 청소년카페 '톡톡톡'을 말하다

## 정책(또는 프로그램/사업) 제안내용

현재 대부분의 청소년 기관들은 몰려있으며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학원가나 상가가 많은 건물 주변에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많지 않다.

문화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카페에 대한 증설을 제안하는 바이다. 청소년 거주 인구 대비, 청소년 시설유무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수의 청소년 카페 혹은 시설들이 증설되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제안을 한다.

### 제안1

고양시의 많은 지역 중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공간)이 없는 곳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한가지의 예로 중산동을 제안하고 한다. 중산동(일산서구)에 사는 청소년들은 주변에 마땅히 놀 곳이 없어 PC방을 가거나 웨스턴돔이나 라페스타까지(일산동구) 나간다고 한다. 지하보도나 학원가 빈 상가, 행정기관 등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카페 증설을 제안한다.

**장점**– 청소년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시설이 설치된다며, 청소년들의 이용과 사용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또한 건전한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스트레스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단점**– 초기 건설비용 및 유지비용의 부담이 생길 것이다. 청소년 시설의 무분별한 신설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고, 설치가 시급한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

## 제안2

청소년의 문화 활동을 위한 카페에서 하는 청소년 활동을 위한 물품 지원

청소년 카페에서는 동아리 모임, 멘토링, 회의, 강의, 수다 등은 청소년들이 카페에 모이는 경우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카페에서 평소 하고 싶어 하는 활동으로는 음료수를 마시러 오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고, 영화를 보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보지 못하는 청소년을 위한 영화, 보드게임, 만화책, 컴퓨터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컴퓨터, 또는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작은 홈트레이닝 기구 등이 있다. 청소년들이 카페에서 다양한 물품들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점**– 청소년들이 다른 곳에서 비싼 돈을 주고 영화를 보고 보드게임을 하고 컴퓨터를 하는 대신 청소년을 위해 이용료를 낮춘다면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을 할 것이다.

**단점**– 청소년들은 물건을 험하게 다루거나 쉽게 흥미를 잃는 경우가 있어서 수리·유지 비용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 기대효과

### 1. 청소년의 실질적 경제적 부담 감소

청소년 카페는 다른 상업적으로 기업 등에 의해 세워진 업소들에 비해 장소 대여나 음료 및 간식들을 사는 것에 있어 가격이 더 저렴하다.

1) 자료를 보면 한 카페의 프라푸치노와 블렌디드의 가격이다. 가격은 대부분 5000원을 넘는다. 어른들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대로 된 수입 없이 용돈을 받아쓰는 일반적인 청소년들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중산의 경우 중산동에 많은 학교들이 있지만 마땅히 놀만한 곳이 없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웨돔이나 라페스타에 간다. 그렇게 되면 총동적인 지출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 중산동에 카페가 생기면 이동하는 교통비나 추가적인 지출을 줄일 수 있다.

## 2. 청소년의 동아리 활동 활성화

동아리 활동은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이루어진다. 동아리들은 특성상 여러 사람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고 활동해야 다음에 카페나 도서관은 당연히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청소년 카페의 경우는 다르다. 청소년 카페는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할 뿐더러 방을 빌려 이용할 수도 있다. 청소년 카페가 생긴다면 없을 때 보다 훨씬 편리하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3. 개인 여가생활 및 공부에 편리함.

청소년 카페는 도서관보다는 편안한 분위기가 형성되어있다. 게다가 카페와 다르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대다수라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더욱이 청소년들이 비싼 음료를 사가며 카페에서 공부를 해야 하냐고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청소년 카페에서 공부한다면 이용객들이 대부분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선들과 비난을 받지 않아도 된다.

## 4. 청소년 위험 노출 가능성 감소.

앞서, 말했듯이 중산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라페스타나 웨스턴 돔 등 먼 곳으로 나가 논다. 그렇게 되면 담배나 술 등 유해업소들을 접하게 된다. 그런 것을 자주 접하게 되면 익숙해지고 위험성을 느끼기 어렵게 된다.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그런 것에 동화될 수 있다. “청소년 기본법”이란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중산동에 거주하는 약 16,000명의 초/중/고생들은 청소년 기본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근처에 청소년 카페가 생긴다면 그 위험이 조금은 줄어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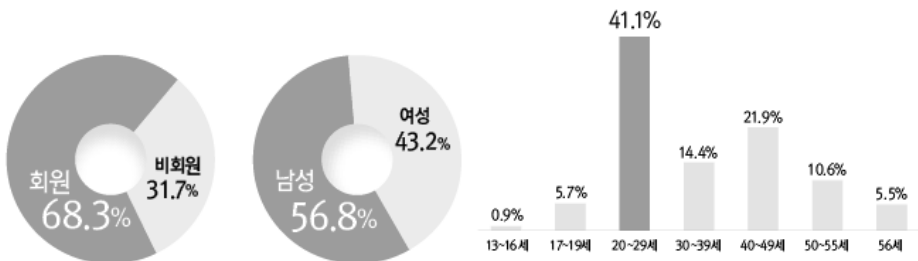
## □ 안전상임위원회 : 공유 자전거 활성화

정책제안주제	공용 자전거 활성화
제안내용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들이 공용 자전거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피프틴 결제 수단의 다양화 필요</li> <li>- 청소년들이 등·하교 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에 피프틴 스테이션 추가 설치 필요</li> </ul>

제안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등
<p>고양시는 대중교통체계가 잘 잡혀 있는 도시이다. 서울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다니고 있고, 2006년에 개통한 고양 BRT(간선급행버스체계)로 인해 버스를 이용하기 수월하다. 또한, 자전거전용도로가 있고 자전거 대여 시스템인 ‘피프틴’ 이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다. 이러한 환경 덕분에 고양시에서는 자전거 이용객을 흔히 볼 수 있다.</p> <p>하지만 자전거와 버스가 주요 교통수단인 청소년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 자전거 - 버스 간의 연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피프틴 스테이션은 주로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역 부근에 있다. 그래서 피프틴을 이용한다면 자전거와 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피프틴 시스템 특성상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하기 힘들다. 피프틴을 이용하기 위해선 회원권을 구입하거나 비회원으로 1회 대여하는 방법이 있다. 이용권은 회원권 3개월 2만원,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이용권은 1개월 9천원이라 청소년이 구매하기엔 부담스럽다. 다른 방법인 비회원 1회 대여의 경우 핸드폰 소액결제 이외의 결제방식이 없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핸드폰 요금을 본인이 아닌 부모님이 대신 납부하기 때문에, 핸드폰 소액결제라는 방식 자체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자전거 - 버스 간의 연계가 가능한 방법인 피프틴은 청소년보단 청년층과 직장인들이 많이 사용한다.</p> <p>실제로 2014년 약 133만 건의 대여건수 중 10대의 대여건수는 5만 7,000건 정도에 불과했다. 피프틴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이용 대상도 만 17세 이상을 권장하고 있다.</p>

〈2014년 피프틴 이용 현황 [자료출처: 고양신문]〉

대 여 현 황 분 석



피프틴은 핸드폰 소액 결제 또는 피프틴 전용 카드를 구입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핸드폰 소액 결제는 청소년의 대부분이 보호자의 허가 하에만 이용할 수 있기에 현실적으로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 그리고 피프틴 전용 카드는 장기간 사용만 가능하기에 청소년이 이용할 시에는 비용 면에서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장기간이 아닌 한 번, 두 번으로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더욱 부담감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

고양시는 환경적, 문화적 측면에서 자전거 이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20만 여명의 고양시 청소년들이 겪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고양시의 자전거 이용 장려는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정책(또는 프로그램/사업) 제안내용

[피프틴 결제 수단 다양화 및 중·고등학교 부근 피프틴 스테이션 추가]

현재 피프틴을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이다. 회원가입을 하여 정기 이용권을 이용하는 방법, 편의점에서 1개월~3개월 이용권을 구매하여 쓰는 방법, 그리고 핸드폰 소액결제가 있다. 이 세 가지 방법들 모두 청소년들에게 부담이 된다.

일단 이용권의 최소 금액이 청소년들이 느끼기에 높은 금액이다. 정기 이용권은 최소 금액이 3개월에 20,000원이고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이용권은 최소 금액이 1개월권 9,000원이다. 이 금액은 청소년들에게 부담이 되는 금액이다. 가장 저렴한 방법인 핸드폰 소액결제라는 방법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다. 핸드폰 요금을 부모님이 내주시기 때문에 핸드폰 소액결제를 아예 막아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교통카드를 주로 이용한다. 등록절차도 간단하고 필요할 때마다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고 휴대성도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 교통카드를 피프틴 결제방법에 추가한다면 그동안 비용 문제로 피프틴을 이용할 수 없었던 많은 청소년들이 손쉽게 피프틴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의 핸드폰 소액결제 방법과 유사하게 교통카드로 1회 이용 할 수 있게 피프틴 스테이션 기계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고양시 입장에선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피프틴 사용 활성화를 보다 손쉽게 이뤄낼 수 있다.

2014년 기준, 10대 청소년들의 피프틴 이용률이 6.6%로 저조한 이유는 피프틴 스테이션의 위치 문제도 있다. 일산 지역에 있는 상당수의 중·고등학교는 주위에 피프틴 스테이션이 있어 결제수단만 갖추어져 있다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주위에 피프틴 스테이션이 없는 학교가 많다. 이 학교 학생들은 등·하교 시 피프틴을 타고 싶어도 주위에 스테이션이 없으니 이용할 수가 없다. 이러한 학교 주위에 피프틴 스테이션이 추가로 설치된다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피프틴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고양시 공용 자전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기대효과

##### 1. 청소년 건강 증진

피프틴 스테이션이 고양시의 중·고등학교 부근에 추가가 되고 결제수단이 다양해지면 자연스럽게 등·하교 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고양시 청소년들의 체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현대 청소년들의 운동 부족으로 인한 체력 저하 문제를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

##### 2. 특정 시간 교통 혼잡 감소

현재 고양시에서는 야외공연은 호수공원, 정발산 일산문화광장에서 주로 한다. 반면에 실내 콘서트나 공연 등은 아람누리과 어울림누리, 그리고 킨텍스에서 주로 열린다. 야외공연의 주요 무대인 호수공원과 실내 공연의 주요 무대인 어울림누리는 자전거만으로는 이동하기 어렵다. 피프틴 결제수단 다양화가 이루어지면 자전거만으로는 이동하기 힘든 호수공원-어울림누리 등의 구간을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버스를 타고 이동 후에 정류장 부근에 있는 피프틴을 이용하기 보다 더 편리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범위가 확장되면 고양시 곳곳에 퍼져 있는 문화 공간 간의 이동과 교류가 활발해진다.

##### 3. 청소년의 문화 활동 참여 기회 증가

고양시에서 주최하는 야외행사는 대부분 정발산역 일산문화광장과 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대 부근에 집중되어 있다. 이 두 곳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오기 편하지만, 자전거를 타야 이동이 용이한 곳이다. 그래서 그동안 호수공원이나 정발산역에서 먼 곳에 사는 청소년들은 이러한 야외 행사에 참여하고 관람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다. 피프틴 결제수단의 다양화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 기회가 증가할 것이다.

## □ 안전상임위원회 : 학교옥상 관련 규정 제정

정책제안주제	학교 옥상 광권 규정 제정
제안내용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들의 쉼의 공간,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학교 옥상 공간 조성</li> <li>- 현재 학교 옥상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 제정 필요</li> <li>- 학교 옥상 개방 시 안전 규정 필요</li> </ul>

### 제안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등

학교 시설물은 학생들의 편의나 교육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또한 학교 시설물에는 그에 대한 안전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인지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엄연히 학교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관련 규정 자체가 없는 장소가 있다. 바로 학교 옥상이다.

일부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는 안전상의 이유로 학교 옥상을 출입금지구역으로 설정해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 대한 근거가 될 규정 자체가 없다.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학교는 옥상을 개방하지 않은 상태로 두고 있고, 이마저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각종 자살사고나 안전사고 또는 탈선행위가 발생한다.

얼마 전에 경기도의 한 중학교의 옥상에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려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해당 학교의 옥상은 출입금지구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입금지구역인 옥상에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SNS 상에 올린 중학교 옥상에서 찍은 인증샷

[사진출처: 페이스북]〉

해당 사례를 통해 옥상을 무조건 출입금지구역으로 설정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비교적 손쉽게 옥상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옥상을 개방한 학교들은 학교 옥상을 천체관측이나 학생 휴게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주엽고등학교가 그 예이다. 주엽고등학교는 옥상을 개방하여 천체관측동아리 활동이나 사격부 연습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주엽고등학교 천체관측동아리가 찍은 옥상에서의 야경  
[사진출처: Deskgram]〉

더 이상 근거 없이 무조건 학교 옥상을 출입금지구역으로 설정해 놓는다면 사건사고의 사각지대가 될 것이다. 고양시청소년의회 안전상임위원회에서는 학교 옥상에 대한 안전 규정을 제정하고, 학교 옥상을 학교 시설물로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는 바이다.

#### 정책(또는 프로그램/사업) 제안내용

##### [청소년들의 쉼 공간,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학교 옥상 공간 조성]

고양시의 중 · 고등학생들은 하루의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지내고 있다. 뻘뻘한 하루 교과일정 중에 그나마 쉬는시간과 점심시간은 우리에게 쉼의 시간이지만, 교실은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에는 너무나 좁고 답답하다.

청소년들이 잠시나마 쉼의 여유를 가지고, 때로는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장소로 학교 옥상을 학생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 달라는 제안을 한다.

학교 옥상 공간의 테마는 학교마다의 재량을 가지고, 학생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쉼의 공간, 동아리 활동 공간, 스트레스 해소 공간 등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이때, 공간 조성은 학생들과 교직원이 협력하여 함께 기획, 구성해 나가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교 옥상 공간을 조성하고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안전한 학교 옥상 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 제정'을 제안하는 바이다

- 학교 옥상도 학교 시설물 중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있지 않는 이상, 개방하는 것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만들 것을 제안하다. 규정의 큰 틀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옥상

가. 학교 옥상은 학교 시설물의 일부이므로 학생들의 교육 또는 편의 제공을 위해 개방하도록 한다. 단, 학교 옥상에 태양광 전지판 등 주요시설이나 대형 환풍구 등 위험시설물이 있을 경우 학교장의 재량으로 옥상을 출입금지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나. 학교 옥상을 개방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울타리의 높이는 최소 170cm 이상으로 한다.
2. 옥상 입구, 활동 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비행, 안전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
3. 옥상 내에 면적에 따라 필요한 소화기기를 배치한다.
4. 옥상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범죄는 학교 내에서 발생했을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5.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후 시간(일부)에는 모두에게 개방한다.
6. 옥상에서 화기 사용을 일절 금지하고 금연구역으로 설정한다.

다. 학교 옥상을 출입금지구역으로 설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상으로 통하는 문은 항시 자물쇠 또는 도어락으로 잠가 두어야 한다.
2. 옥상으로 통하는 문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 라는 문구를 붙여두어야 한다.
3. 학교의 모든 교사가 옥상의 자물쇠 열쇠 위치 또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숙지하여 화재 등의 비상 상황 발생 시 옥상으로 학생들을 대피시킬 수 있게 한다.

라. 학교 옥상은 다른 학교 시설물들과 같이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 기대효과

### 1. 학생들의 문화적 · 교육적 활동 범위 증가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어도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학교 옥상을 개방하게 된다면 이미 학교 옥상을 개방한 학교들처럼 천체관측 등의 동아리 활동 공간으로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동아리 활동 이외에도 야외 교육 장소로 사용할 수 있어 교육적 활동 범위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 2. 스트레스 감소로 인한 자살률 감소 및 학업 성취도 증가

한국 교육 과정 특성상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고 학업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이는 10대 청소년들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또한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얻게 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17년 기준 청소년 자살시도율은 2.6%에 달한다. 그만큼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학교 옥상을 개방하여 학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면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스트레스 감소는 청소년 자살률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학업에 임하여 학업성취도가 증가할 것이다.

### 3. 사건 ·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후속 조치 용이

학교 옥상하면 자살 사고나 각종 폭력 사건이 연상되는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없는 공간 취급하여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 옥상에 대한 규정이 생길 경우 옥상 감독 선생님이나 CCTV 등의 도입으로 사건 ·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사건 ·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빠르게 원인을 파악하고 신속히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교내 사건 · 사고가 줄어든 것이다.